1 판매량

1 만족도

1 평가도

KOREA EDUCATIONAL BRAND AWARDS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2022

수능 기출 문제 은행

Xistory stands for extra intensive story for an entrance examination for a university.

2024 수능 대비

Xistory

수능 연도별 모의고사

고3 국어 [선택: 언어와 매체]

최신 수능 6회
+ 최신 모평 10회
+ 최신 학평 13회
+ 수능 예시 1회

30회

- ▲ 실제 시험지와 똑같은 실전 모의고사 30회
- ▲ 빠른 정답 확인과 정확한 등급컷 수록
- ▲ 독서 – 지문 내용과 구조 완벽 분석 해설
- ▲ 문학 – 이것이 핵심, 주제, 작품 간단 정리 해설
- ▲ 언어와 매체 – 출제 개념과 문제 유형 분석 해설
- ▲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명쾌하게 분석한 입체 첨삭 해설
- ★ 부록: 연습용 [OMR 카드]

수경출판사
수험생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국어 영역

1회

[1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능숙한 독자는 어떤 능력과 태도를 지니고 있을까? 능숙한 독자는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배경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지닌다. 배경지식은 독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구조화된 경험과 지식의 총체이다. 능숙한 독자는 읽을 글과 관련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한 후, 이를 활용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그런데 능숙한 독자라도 배경지식이 부족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만날 수 있다. 이 경우 능숙한 독자는 글의 읽기를 중단하지 않고 글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 글의 의미를 구성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참고 자료를 찾아 관련 부분에 대한 이해를 확충한다.

능숙한 독자는 독서를 준비할 때 읽을 글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신의 독서 역량을 점검하는 태도를 지닌다. 그리고 독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독서 전략을 세운다. 그런데 막상 독서를 하다 보면 글의 특성이 예상과 다를 수 있고, 독서 환경이 변할 수도 있다. 능숙한 독자는 달라진 독서 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새로운 독서 전략을 적용하고 독서 행위를 조절한다. 그리고 독서 후에는 자신이 독서의 목적과 글의 특성에 맞게 독서를 했는지를 성찰하여 평가한다.

[A] 우리 선조들도 경서를 읽으려는 독자에게 일정한 능력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서를 읽는 목적은 글에 담긴 이치를 통해 모든 일의 섭리를 깨우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인데, 경서는 필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단 글의 내용에 익숙해지기 위해 반복적으로 읽는 독서 전략을 운용했다. 그 후에 독자는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새로운 독서 방법을 적용했고, 적극적으로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등의 새로운 전략을 운용했다.

능숙한 독자는 한 편의 글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지향한다. 꾸준히 자신의 독서 이력을 점검하고 앞으로 읽을 독서 목록을 정리하여 자발적이고 균형 있는 독서를 생활화한다. 그리고 독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를 자신과 사회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 윗글의 능숙한 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글을 읽기 전에 읽을 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독서 능력을 점검한다.
② 글을 읽는 도중에 글과 관련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③ 글을 읽는 도중에 독서 환경이 변했다면 변한 환경에 어울리는 독서 전략으로 수정한다.
④ 글을 읽는 도중에 글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전후 맥락을 고려한 글 읽기를 지양한다.
⑤ 글 읽기를 마친 후에 독서 목적과 글의 특성에 맞는 독서를 했는지 평가한다.

2.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너는 모쪼록 지금부터 경전을 읽되 미리 의심을 일으키지 말고 **오직 많이 읽도록 노력하**고, 읽기가 이미 완숙하게 되면 또 **반드시 활법*을 써**서 마음을 활발한 경지에 두어 모든 선입견을 놓아 버린 평정한 상태로 **조금의 고집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비로소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따라 더욱 궁구하**여, **오늘 하나의 문제가 시원하게 뚫리고 내일 하나의 문제가 부드럽게 풀리**게 될 것이다.

– 정조, 「고식」 –

* 활법(活法) : 독창적인 생각으로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것.

① '오직 많이 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글의 내용에 익숙해지기 위해 운용해야 할 독서 전략을 밝힌 것이로군.
② '반드시 활법을 써'야 한다는 것은 독자가 이전과 달라진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새롭게 적용할 독서 방법을 제시한 것이로군.
③ '조금의 고집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독서 방법을 고수하기보다 기존의 해석에 따라서만 글의 의미를 이해하라고 제안한 것이로군.
④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따라 더욱 궁구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에 담긴 이치를 깨달으라고 권유한 것이로군.
⑤ '오늘 하나의 문제가 시원하게 뚫리고 내일 하나의 문제가 부드럽게 풀리'게 되는 것은 독서 목적을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로군.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지금까지 읽었던 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았어. 다양한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이 과학이나 기술 관련 책이었어. 앞으로는 그동안 읽지 않았던 분야인 인문이나 사회 관련 책도 열심히 읽어야겠어.

① 자신의 독서 이력을 점검하고 균형 있는 독서를 계획하고 있다.
② 독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려 하고 있다.
③ 지금까지의 독서 생활이 지속적이지 않았음을 반성하며 독서의 생활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④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의 유용성을 파악하여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⑤ 독서 경험이 자신의 독서 역량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독서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p.3

[4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식품처럼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재와 달리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 한다.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예를 들어 인권 등을 공익이라 보는 입장이다. 과정설은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하고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중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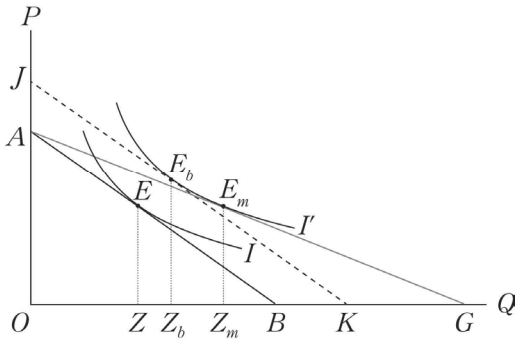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정책 딜레마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에 대해,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주는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의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 비용이 ⓐ 증가한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 왔다.

㉠ '합리 모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 관계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이 의사 결정자들에게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은 오지 않기 때문에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결정을 강조한다.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 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 기대하는 것이다.

정책 딜레마의 지속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충분한 예산과 정보가 갖춰질수록 검토해야 할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딜레마 지속으로 인한 비용 역시 대폭 증가한다. 이런 점에서 만족 모형은 주어진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아니라 딜레마 상황의 지속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사 결정자들의 전략으로 ⓒ 채택될 수 있다.

(나)

지방 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에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데 반해,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Q)과 사용재의 양(P)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은 선분 AB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는 I로,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로 나타나 있다.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E로 나타나 있다.



<그림>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정액 지원금은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액 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의 예산선은 원래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해 만들어진 선분 JK가 된다. <그림>에는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의 균형점이 E_b로 나타나 있다. 이론적으로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다. <그림>에서 원래의 예산선은 선분 AB였는데, 정률 지원금으로 인해 예산선은 선분 AG로 변한다. 이렇게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E_m이 된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 지원금은 지방 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데 정액 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론적으로는 정액 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사 결정자들은 ⓔ 숙고할 수밖에 없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정부와 사회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공공재와 사용재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함을 부각하고 있다.
② (나)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의사 결정자들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③ (나)는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지역 사회의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④ (가), (나) 모두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정책 결정 모형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⑤ (가), (나) 모두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분석하며 정책 효과의 극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어 영역

5.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실체설이다.
② 과정설은 어떤 특정 이익도 적절한 절차를 따랐을 경우 공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③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공공재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④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성격을 띤다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⑤ 공익의 실체가 분명하고 정부 관료들이 준수해야 할 적절한 절차가 있다면 정책 딜레마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6. (가)의 ㉠, ㉡ 입장에서 (나)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중앙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지원금 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서도 의사 결정자들은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② ㉠: 중앙 정부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③ ㉡: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④ ㉡: 중앙 정부가 어떤 재정 지원을 하든 시장에서 능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든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⑤ ㉡: 딜레마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게 되는 시간은 무한정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재정 지원 형태를 결정한다.

7. (나)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이 모두 없다면 점 E가 해당 지역에서 선택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균형이다.
② 정률 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보다 정액 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이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③ 공공재의 소비는 정액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_b만큼 늘어나고,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_m만큼 늘어난다.
④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되므로 예산선이 선분 AB에서 선분 AG로 이동한다.
⑤ 점 E_b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E_m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으므로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Z_b에서 Z_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8. (나)와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지역 주민 소득이 10억 원 늘어났을 때에는 1억 원 정도만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는 데 비해, 해당 지방 정부에 10억 원의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2억 원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었다.
(단,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지 않은 것은 모두 사용재 구입에 소비되었다고 가정한다.)

① <보기>의 사례는 지방 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 주민 소득의 직접 증가보다 정액 지원금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 주는군.
② <보기>의 사례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정액 지원금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③ <보기>의 사례는 지원금의 80%가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므로 이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④ <보기>의 사례는 사용재 소비에 투입되지 않고 공공재 소비에 투입된 지원금 2억 원은 지역 주민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⑤ <보기>의 사례는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나누어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 주는군.

9. ⓐ ~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도서관의 장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② ⓑ: 우리는 날씨가 맑기를 기대했다.
③ ⓒ: 채택된 원고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④ ⓓ: 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품을 재출시했다.
⑤ ⓔ: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주변 사람들에게 숙고했다.

정답 및 해설 p.4~5

[10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자 입력 창에 한 글자만을 입력했는데 완성된 문구가 ⓐ 제시되는 자동 완성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코'라는 문자를 입력했다면 '코피', '코로나' 등이 후보로 제시되어 휴대 전화와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사용했던 단어들 중에서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하는 것을 찾고 그중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후보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워드 프로세서에서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검색어가 ⓑ 포함된 문자열을 찾는 것이다. 검색은 자동 완성과 달리 대상 문자열의 어느 위치에서도 검색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사용 빈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비교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글'이라는 검색어를 '한글:␣우리나라에서␣창제된␣우리글'이라는 띄어쓰기(␣)가 포함된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에서 검색한다고 ⓒ 가정해 보자. ㉠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글'이 3글자이므로 대상 문자열을 3글자씩 잘라 1글자씩 비교하는 것이다. '한글:', '글:␣', ':␣우' 등과 같이 16개의 비교 대상을 만들고 이를 검색어와 각각 비교하여 모두 같은지 확인한다. 하나의 비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글자를 각각 비교해야 하므로 총 16×3번 비교를 하게 될 것이다. 검색어 길이에 비해 대상 문자열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으므로 이 방법은 검색어와 비교해야 하는 대상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비교 횟수가 늘어나 검색 시간이 늘어난다.

[A]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검색어와 비교 대상을 1글자씩 비교하지 않고 3글자씩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면 그만큼 비교 횟수가 줄어들게 되어 검색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 각각의 문자열에 특정 값을 ⓓ 생성하는 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하고, 어떤 문자열에 대해 해시 함수가 생성한 값을 해시값이라고 한다. 만일 해시 함수가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 모두 다른 해시값을 생성한다면 검색어의 해시값과 비교 대상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두 문자열이 일치함을 단번에 ⓔ 판단할 수 있다.

앞의 예와 같이 검색어가 3글자이고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이 제시된다면 비교 대상은 16개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각 비교 대상에서 문자열 비교는 1번의 해시값 비교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비교 횟수는 감소하게 된다. 물론 해시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의 연산이 추가되지만 추가되는 연산 시간이 각 글자 단위의 비교에 필요한 연산 시간보다 짧다면 전체적인 검색 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시 함수는 연산이 간단하면서도 중복되지 않는 해시값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10.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검색은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자열에 동일한 해시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③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검색어를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④ 자동 완성은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입력되는 문자가 포함된 문자열을 후보로 제시한다.
⑤ 자동 완성은 휴대 전화와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11.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들어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할 수 있겠군.
② 대상 문자열에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해시값이 작아져서 해시 함수의 연산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군.
③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비교 대상이 늘어나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할 수 있겠군.
④ 대상 문자열이 1개일 경우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들어 해시값 비교 횟수가 감소할 수 있겠군.
⑤ 대상 문자열이 2개일 경우 검색어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늘어나 해시 함수의 연산 시간이 증가할 수 있겠군.

12. ㉠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추가하여 검색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조건]
- 검색어에 문장 부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문장 부호가 있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
-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우리␣글'로 검색할 경우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는 비교 대상 3개가 만들어진다.
② '우리␣글'로 검색할 경우의 비교 횟수보다 '우리글'로 검색할 경우의 비교 횟수가 더 많다.
③ '우리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 대상은 '␣우리', '우리나', '리나라' 등과 같이 3글자로 된 비교 대상들이 만들어진다.
④ '우리글'로 검색할 경우 부분 문자열 '한글:', '글:␣', ':␣우'에는 문장 부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다.
⑤ '우리글'로 검색할 경우 일치하는 문자열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글'로 검색할 경우는 일치하는 문자열을 찾을 수 없다.

13.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
② ⓑ : 어떤 사물이나 현상 가운데 함께 들어 있거나 함께 넣음.
③ ⓒ :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함.
④ ⓓ : 사물이 생겨남.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함.
⑤ ⓔ :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

정답 및 해설 p.5~6

국어 영역

[14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멈춰 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 부딪쳐 흰 공이 움직였다고 하자. 흄은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친 사건과 흰 공이 움직인 사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하고,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서 나타나야 하며,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적 결합이란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이 움직여 부딪친다면, 같은 식으로 공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리드는 위 사례와 같이 흄이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오직 자유 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행위자 인과 이론에서 리드는 원인을 '양면적 능력'을 지녔으며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양면적 능력은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행위자는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변화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이다. 리드는 진정한 원인은 행위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쳤을 때 흰 공은 움직일 수만 있을 뿐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빨간 공은 행위자일 수 없다.

경험론자인 리드의 관점에서 보면 관찰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는 오직 인간뿐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흰 공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빨간 공을 굴렸고 흰 공이 움직였다면 그 사람은 행위자이고 흰 공이 움직인 것은 결과에 해당한다. 리드는 이와 같이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리드는 의욕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리드는,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인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의욕을 일으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또 다른 의욕이 필요치 않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의욕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고 보는 리드의 견해에 대해서는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의욕이라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리드는 항상적 결합만으로는 인과의 필연성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했다.

리드는 ⓐ '기회 원인'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당시에는 중세 철학의 영향으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들의 진정한 원인은 오직 신뿐이며, 행위자는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기회 원인은 일상적으로는 마치 원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이다. 리드는 이러한 입장을 경험주의 관점에서 배격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행위자의 의욕과 행위뿐이며 행위에 신이 개입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드는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위자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14. 윗글에 나타난 리드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은 자유 의지를 지닌 존재로 행위자가 될 수 있다.
②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행위자이다.
③ 인간의 의욕은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항상적 결합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⑤ 흄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도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에는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겠군.
②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는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③ 리드는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친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겠군.
④ 흄은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서 항상적 결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겠군.
⑤ 흄은 빨간 공과 흰 공이 부딪친 사건이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의 원인이라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것일 수 없다고 보겠군.

1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리드의 행위자 개념을 긍정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와 관련한 리드의 대응은 행위자인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했다고 볼 수 있다.
③ ⓐ의 해결을 위해 리드는 행위자가 기회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④ ⓐ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을 인간 자신에게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⑤ ⓐ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 행위의 원인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한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5 / 16

정답 및 해설 p.6~7

17. <보기>는 철학자들이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A: 리드에 따르면 의욕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발휘는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연쇄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고, 의욕에 선행하는 의욕이 무한히 필요해집니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어떤 의욕도 일으킬 수 없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B: '의욕의 무한 후퇴 문제'를 제기한 것이군요. 리드는 [㉮]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① 의욕과 무관하게 정신적 사건이 결과가 될 수 있다
②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는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
③ 양면적 능력의 발휘와 그 결과로서의 의욕은 구별될 수 없다
④ 의욕에 또 다른 의욕이 선행하는 연쇄는 관찰의 범위 내에 있다
⑤ 의욕을 일으키는 양면적 능력은 변화를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18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일은 할미 집에 온 다음 해 3월 보름에 할미는 술 팔러 가고, 낭자 홀로 초당에서 수를 놓고 있는데, **청조**가 날아와 매화 가지에 앉아 울거늘, 낭자가 왈,

"저 새도 나처럼 부모를 여의었는가? 어찌 혼자 우는가?"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홀연 졸더니, 그 새가 낭자에게 왈,

"낭자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 저와 함께 가사이다."

하거늘, 낭자가 그 새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백옥 같은 연못 가운데 구슬로 대를 쌓고 그 위에 누각을 지었으되, 주춧돌과 기둥은 만호와 호박으로 만들었고 지붕은 유리로 이었는지라. 광채가 찬란하여 바로 보지 못할네라. 산호로 만든 현판에 금으로 '**요지**'라 쓰여 있었으니, 서왕모의 집일너라.

너무 으리으리하여 낭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주저하더니, 문득 서쪽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고 기이한 향내 진동하더니, 무수한 선관과 선녀들이 용도 타며 봉황도 타며 쌍쌍이 들어가고, 청운(靑雲)이 어린 곳에 옥황상제께서 육룡이 모는 옥수레를 타고 오셨으며, 그 뒤에 서천 석가여래 오신다 하고 제천 제불과 삼태 칠성과 관음 나한과 보살이 시위하여 오되, 사방에서 풍류 소리 진동하니, 그 위엄 있고 엄숙한 행차와 거동이 일대 장관이더라. 이윽고 구름이 크게 일어나며 그 속에 백옥교자 탄 선녀가 백년화 한 가지를 꺾어 쥐고 단정히 앉아 있는데, 좌우에 무수한 선녀가 시위하여 오더니, 이는 ㉠ 월궁항아의 행차러라. 항아가 숙향을 보고 왈,

"반갑다, 소아야! 인간 세상에서 고행을 얼마나 겪었는가? 나를 좇아 들어가 요지의 경치나 보고 가거라."

하거늘, 숙향이 항아를 따라 들어가니, 그 집 형상과 으리으리한 모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각양각색의 풍류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한 보살이 젊은 선관을 앞에 세우고 들어와 상제께 뵈오니, **상제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

"태을아, 인간 재미 어떠하며, 소아를 만나 보았느냐?"

그 선관이 땅에 엎드려 무수히 사죄하더라.

항아가 옥황께 여쭈오되,

"소아가 네 번 죽을 액을 지나왔사오니 그만하옵셔 복록*을 정하쇼서."

상제 허락하셔서 여래에게 명하셔서 수명을 정하라 하시니, 여래 아뢰되,

"일흔 살을 정하나이다."

또 북두칠성에게 명하셔서 자손을 정하라 하시니, 칠성이 아뢰되,

"아들 형제와 딸 하나를 정하나이다."

또 남두칠성에게 명하셔서 복록을 정하라 하시니, 남두성이 아뢰되,

"두 아들은 정승이 되고, 딸은 황후가 되게 정하나이다."

상제 소아에게 명하셔서 ⓐ 반도 두 개와 계화(桂花) 한 가지를 태을선군에게 주라 하시니, 소아가 상제 명을 받들어 한 손에 반도를 옥쟁반에 담아 들고, 한 손에 계화 한 가지를 가지고 내려와 태을선군에게 주니, 그 선관이 두 손으로 받으며 소아를 눈여겨보거늘,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설 때 손에 낀 ⓑ 옥지환의 진주가 계화에 걸려 떨어지거늘, 소아가 쥐고자 할 차에 벌써 그 선관이 쥐거늘,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서서 들어가고자 할 때, 할미 들어와 낭자를 깨워 왈,

"봄날이 곤하거니와 무슨 낮잠을 그다지 오래 자는가?"

하며 깨우거늘, 소저 그 소리에 놀라 깨어 일어 앉으니, 요지의 풍경이 눈에 어른거리고, 천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더라.

국어 영역

(중략)

3월 보름에 대성사에 올라가니, 몸이 곤하여 졸려 난간에 의지하여 잠깐 잠을 들었더니, 꿈에 **부처** 와 이르되,

"오늘 서왕모가 **요지**에서 잔치하니, 그대도 나를 좇아 구경이나 하자꾸나."

하거늘, 이선이 매우 기뻐 부처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선녀가 무수히 모여 분주하며, 기이한 화각(畫閣)과 빛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향내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부처 이선에게 손으로 가리키며 왈,

"북쪽 옥륜대 위에 높이 앉은 이는 옥황상제이시고, 그 뒤에는 삼태 칠성이 모든 별을 거느렸고, 동편 백옥교에는 석가여래 모든 부처를 거느리고 차례로 앉아 있으니, 내 먼저 들어가거든, 그대는 내 뒤를 좇아서 상제를 뵈온 후에 차례로 좌우에 있는 선관들에게 인사를 드리시게."

이선 왈,

"너무 으리으리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할까 하나이다."

부처 웃고 소매 안에서 ⓒ 대추 같은 과일을 주며 왈,

"이것을 먹으면 자연 알리라."

하거늘, 선이 받아먹으니, 전생에서 하던 일이 어제 같아, 모든 선관이 다 전의 친하던 벗일네라. 새로이 반가운 마음을 금치 못하여 부처께 사례하니, 부처 먼저 들어가거늘, 선이 뒤를 따라 들어가 상제께 큰절을 하고 모든 선관들에게 차례로 인사하니, 다 반겨하더라. **상제 전교*하시되**,

"태을아, 인간 재미 어떠하더냐? 네 소아를 만나보았느냐?"

선이 땅에 엎드려 사죄하더니, 상제 한 선녀를 명하셔서 반도 두 개와 계화 한 가지를 바치라 하시니, 이선이 땅에 엎드려 두 손으로 받으며 선녀를 얼핏 보니, 선녀 부끄러워 몸을 돌아설 때 손에 낀 옥지환의 진주가 계화에 걸려 선의 앞에 떨어지거늘, 가만히 한 손으로 쥐고 다시 희롱코자 하더니, 대성사 중들이 저녁 공양을 하기 위해 종을 치니, 그 소리에 놀라 깸에 요지의 풍경이 눈에 선하고 천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며, 손에 진주가 분명 쥐어져 있거늘, 너무 신기하여 즉시 글을 지어 꿈속의 일을 기록하고, 부처께 하직한 후 집에 돌아오니라. 이후로는 부귀공명에 뜻이 없고, 오로지 소아만 생각하며 지내더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 복록 : 복되고 영화로운 삶.
* 전교 : 임금의 명령을 내림.

18.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이선은 요지에 다녀온 후 숙향을 보고 싶어 했다.
② 숙향은 부모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청조를 따라갔다.
③ 숙향은 청조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며 슬픔을 느꼈다.
④ 숙향과 이선은 모두 서왕모 집의 규모에 압도됨을 느꼈다.
⑤ 이선은 마음이 석연치 않음에도 서왕모의 잔치에 참석했다.

1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숙향이 겪은 과거 사건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② 숙향이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행에 대해 알고 있다.
③ 숙향이 이선과 맺게 될 인연을 상제에게 설명하고 있다.
④ 숙향이 요지에서 겪을 일을 숙향에게 미리 알려 주고 있다.
⑤ 숙향이 태을선군을 이선으로 생각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인물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실제 있었던 일로 믿는 증표가 되고 있다.
② ⓑ는 인물이 상대 인물에게 보인 수줍음이 완화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③ ⓒ는 인물로 하여금 자신이 접하게 되는 주변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④ ⓐ, ⓑ는 모두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
⑤ ⓑ, ⓒ는 모두 인물이 상대 인물과의 인연을 마음에 품게 만들어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숙향전」은 다양한 환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상담의 구성에 여러 가지 서사적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가령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겪은 환상 체험을 제시하여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술자는 공통적인 서사 장치를 활용해 인물들이 비현실적 공간에 들고 나도록 하고 있으며, 인물들의 체험의 동일성이 나타나도록 진술하고,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 체험은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① 숙향이 '청조'를,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키고 그 만남의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환상 체험의 주요 사건을 암시하고 있군.
② 숙향과 이선이 환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데에 두 사람이 각자 잠드는 것을 서사적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숙향과 이선의 환상 체험 간의 관련성을 높이고 있군.
③ 숙향과 이선이 공통적으로 '요지'에서 화려한 누각을 보고 향내를 맡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각각 겪은 체험의 동일성을 나타내고 있군.
④ '상제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라고 서술한 것을 '상제 전교하시되'로 서술함으로써 숙향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과 이선이 당사자로서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군.
⑤ 숙향이 환상 체험하는 과정에서 상제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의 숙향의 수명, 자손, 복록 등이 정해지도록 제시함으로써 환상 체험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하고 있군.

정답 및 해설 p.8~9

[22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하오
말씀을 드러하니 설운 줄 다 모를새
㉡ 인연인들 한가지며 이별인들 같을손가
광한전 백옥경의 님을 뫼셔 즐기더니
아양을 하였거니 재앙인들 업슬손가
해 다 저문 날의 가는 줄 설워 마소
엇더타 이 내 몸이 견줄 데 전혀 업네
광한전 어디인가 백옥경 내 알던가
원앙침 비취금에 뫼셔 본 적 전혀 업네
내 얼골 이 거동이 무엇으로 님 사랑할가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歌舞)야 더 이를가
엇언지 님 향(向)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생기시고 성현이 가르쳐서
정학*이 앞에 잇고 부월*이 뒤에 이셔
일백 번 죽고 죽어 뼈가 가루가 된 후라도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
나도 일을 가져 남의 업는 것만 얻어
부용화 옷을 짓고 목난으로 주머니 삼아
하늘께 맹세하여 님 섬기랴 원이러니
조믈 시기했나 귀신이 훼방했나
내 팔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가
내 몸의 지은 죄를 모르니 긔 더 죄라
나도 모르거니 남이 어이 알겠는가
(중략)
뫼셔서 이리하기 각시님 같던들
설움이 이러하며 생각인들 이러할가
차생의 이러커든 후생을 어이 알고
차라리 싀여져 **구름**이나 되어서
상광 오색*이 님 계신 데 덮였으면
그도 마소 하면 **바람**이나 되어서
하일 청음*의 님 계신 데 불어서
그도 마소 하면 일륜명월 되어서
영영 반야에 뚜렷이 비최고저

[A]

– 김춘택, 「별사미인곡」 –

* 정학 :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솥.
* 부월 : 작은 도끼와 큰 도끼.
* 상광 오색 : 다섯 가지의 길한 빛.
* 하일 청음 : 여름날의 맑고 시원한 응달.

(나)

님으람* 회양(淮陽) 금성(金城)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삼사월 칡넝쿨**이 되야
그 나무에 그 칡이 납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츤츤 저리로 츤츤 외오 풀러 올히 감아 얼거져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 업시 찬찬 굽의 나게 휘휘 감겨 주야 장상(晝夜長常) 뒤트러져 감겨 잇셔
동(冬)섯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맛즌들 ㉢ 떨어질 줄 이시랴

– 이정보 –

* 님으람 : 임은.

(다)

돌아가신 큰누님의 이름은 아무개로서 반남 박씨이다. 그 동생 지원 중미가 묘지명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누님은 나이 열여섯에 덕수 이씨 택모 백규에게 시집가서 딸 하나 아들 둘을 두었다. 신묘년 구월 초하루에 돌아가 사십삼 세를 살았다. 남편의 선산이 아곡이라 그곳의 경좌* 방향 자리에 장사를 지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백규가 어진 아내를 잃은 데다가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는지라, 아예 어린 자식들과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솥과 그릇가지, 옷상자와 짐 보따리를 챙겨서 배를 타고 그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다. 상여와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 나는 두모포에서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고서 돌아섰다.

아아! 누님이 시집가는 날 새벽에 몸단장하던 모습이 흡사 어제 일만 같구나. ㉣ 나는 그때 겨우 여덟 살이라, 벌렁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새신랑이 말을 더듬으며 점잔 빼는 말투를 흉내 냈다. 누님은 부끄러워하다가 그만 빗을 떨어뜨려 내 이마를 때렸다. 나는 화가 나서 울음을 터트리고는 분가루에 먹을 뒤섞고 거울에 침을 뱉어 문질러 댔다. 그러자 누님은 옥으로 만든 오리와 금으로 만든 벌 노리개를 꺼내어 주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나를 달랬다. 지금으로부터 스물여덟 해 전 일이다.

강가에 말을 세우고 저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이 바람에 펄럭이고 돛대는 비스듬히 미끄러지는데, 강굽이에 이르러 나무를 돈 뒤에는 모습을 감추어 더는 보이지 않았다. 강가 멀리 앉은 산은 시집가던 날 누님의 쪽 지은 머리처럼 검푸르고, 강물 빛은 그날의 거울처럼 보이며,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처럼 보였다. 빗을 떨어뜨리던 그날의 일을 눈물 속에서 생각하니 유독 어릴 적 일만이 또렷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또 그렇게도 즐거운 일이 많았고, 세월은 길게만 느껴졌다.

그사이에는 늘 이별과 환난에 시달려야 했고 빈궁에 시름겨워했다. 그 일들이 꿈속인 양 황홀하게 스쳐 지나간다. ㉤ 형제로 지낸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단 말인가?

떠나는 이 간곡하게 뒷기약을 남기기에
보내는 이 도리어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조각배는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보내는 이 쓸쓸히 강 길 따라 돌아서네.

[B]

– 박지원,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 –

* 경좌 : 서남쪽을 등진 방향.
* 명정 :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는 과거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 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나)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④ (가), (다)에서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p.9

국어 영역

2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화자가 상대방을 부르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 화자는 인연이나 이별의 상황이 각자 다르다고 여기고 있다.
③ ㉢: 화자가 임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 글쓴이가 자신의 나이와 행위를 통해 과거의 철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 글쓴이가 과거 사건을 요약하며 좌절감을 완화하고 있다.

24. [A]에 나타난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이 과거에 임과 만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② 자신이 아무런 죄 없이 참소를 당했다고 임에게 호소하고 있다.
③ 자신이 정성을 담아 만든 물건을 임에게 전달한 후 안도하고 있다.
④ 자신의 행동과 재주가 임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⑤ 자신의 풍류 의식과 성현의 가르침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문학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존재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고전 시가에서 변신에 대한 소망은 주로 (가)와 같이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전생'이나, (나)와 같이 죽지 않고 다른 존재로 몸을 바꾸는 '전신' 등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변신의 양상에는 혼자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상대방과 함께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다른 인간으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등이 있다.

① (가)의 '구름'은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화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② (나)의 '삼사월 칡넝쿨'은 화자가 상상력을 발휘해 몸을 바꾸기를 바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③ (나)의 '그 나무에 그 칡이 납거미 나비 감듯'은 임이 자신과 함께 변신하여 서로의 관계가 굳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④ (가)의 '해 다 저문 날'과 (나)의 '동섯달'은 모두 화자가 임과 헤어지는 시간으로, 화자가 변신을 바라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⑤ (가)의 '바람'은 화자 자신의 변신을, (나)의 '오리나무'는 임의 변신을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6. (다)의 맥락을 고려하여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글쓴이는 [B]에서 누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② 글쓴이가 [B]에서 제시한 시적 배경은 새벽녘 강가로 볼 수 있다.
③ 글쓴이는 [B]를 통해 사별의 정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④ 글쓴이는 [B]에서 상여를 실은 조각배가 떠난 후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B]에서 스스로 묻는 방식으로 더 이상 누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27.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이해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남성 문인들이 쓴 조선 시대 여성의 묘지명은 몇 가지 서술상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남편의 뜻을 따르는 수동적 언행을 제시하며, 고인의 행적 중 살림을 잘해 사후에도 가족들을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일처럼 가문에 공헌한 것만을 골라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은 묘지명이 단순히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고인과의 일화 등을 통해 개인적인 정과 추억을 담아 아름답게 묘사하는 글이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다)에서 당대의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에서 탈피한 내용을 찾아봅시다.

학생 1 : 누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 가문에 대한 자랑과 누님에 대한 애틋한 정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 ⓐ

학생 2 : 누님의 남편이 생계가 어려워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

학생 3 : 누님이 화가 난 남동생을 달래기 위해 노리개를 꺼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 ⓒ

학생 4 : 시집가던 날의 누님의 모습을 글쓴이가 회상하며 누님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을 표현했습니다. ……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정답 및 해설 p.9~10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헌 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위 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 쥔을 붙이었다 : 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 딜옹배기 :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질그릇.
* 북덕불 : 짚이나 풀 따위의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 나줏손 : '저녁때'의 방언.
* 섶 : '옆'의 방언.

(나)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인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

28.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
③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④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⑤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에서 '꽉'과 '핑'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
② (가)에서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③ (가)에서 '쌀랑쌀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화자의 감각 체험이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④ (나)에서 '싸우라'와 '일하라'를 각각 '헛소리'와 연결한 것은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게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⑤ (나)에서 '쓰디쓴'을 '달콤한'과 대비한 것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정답 및 해설 p.10~11

국어 영역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적 공간의 하나인 '방'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가)에서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면서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다. 한편 (나)에서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방을 바꾸는 화자의 행위 속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① (가)는 '쥔을 붙'인 방을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드러내는군.
② (가)는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쌔김질'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군.
③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군.
④ (가)는 화자 자신을 '문창' 너머의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하고, (나)는 '벽'을 '나의 가슴', '나의 사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군.
⑤ (가)는 화자가 방에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다고 함으로써, (나)는 화자가 방을 바꾼 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라고 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우연히 남의 서류 봉투를 들고 온다. 그 안에는 대학원생 이만집이 쓴 '내 젊은 날의 비망록'이란 제목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고 '나'는 그 일기를 읽는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어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단숨에 염색 공장을 찾아온 사연을 쏟아 놓기 시작했다.

"경집이 형이 차 사고를 냈어요. 피해자 쪽에서 5주 진단을 끊어 와서 을러대고 있어요. 타협 볼라고 하는데 미적거리다가 구속으로 떨어질까 봐 걱정들 하고 있어요. 셋째 형이 판사로 있는 동창생을 만나 손을 써보겠다는데 어째 불안해요. 아버지에게는 그냥 제가 알리러 왔어요. 너무 걱정은 마세요. 잘될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말을 채 다 듣기도 전에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쪽문을 들어서는 아버지의 발길이 도살장을 향하는 소처럼 뭉그적거렸고, 돌처럼 각이 진 당신의 등은 뭍에 올라와 뭇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죽음을 앞둔 거북의 딱딱한 등딱지를 닮아 있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처럼 농사나 지어야 할 사람이다. 공연히 상업 학교까지 나와서 평생을 그르쳤다. 아버지의 경우에 학력이란 전연 무용지물이었다. 오히려 교육을 안 받았던 것만 못했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많이 배울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 각자의 양심이 한 시대의 질주와 얼마나 발 빠르게 보조를 맞추느냐는 것은 우리의 날라리 학력에서 곧장 드러난다. 곧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양심을 찾기가 힘들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살이 너무 쪄서 양심이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살이란 결국 적당주의의 탈을 쓰고 병든, 그것도 중증인 이 사회에 부화뇌동하는 능력 그 자체일 테지만.

그러나 일의 선후책을 딱딱 부러지게 따지고 나서 횡하니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던 셋째 형보다는 아버지의 난감한 뒷모습이 내게는 훨씬 인간적으로 돋보였다. 한참이나 외등 불빛을 받으며 서 있다가 나는 단호히 발걸음을 돌렸다. 밤색 바지와 머리통이 작은 박 씨는 어느 쥐구멍으로 사라졌는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측은하게 생각**하며 헤어진 셈이다.

이제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안다. 아들의 장래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내색도 자제하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고 있을 낭패감, 그리고 당신의 무능력에 대한 막심한 자괴감을. 외부에서 무작정 들이닥치는 어떤 물리적인 힘에도 속수무책으로, ㉡ 풍뎅이처럼 죽은 시늉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양반.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용**해 버리는 늙은이를 나는 오늘 새삼 목격, 확인한 셈이다. 아버지도 무능하지만 나는 얼마나 더 무력한가!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애증으로 나는 오늘 참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에도 부정(父情)과 그것에의 적의는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것, 아니 손바닥과 손등 관계라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는데, ㉢ 그게 내게는 적잖은 수확이었다.

이만집의 어머니는 일찍 타계하신 것 같다. 그의 **비망록**에는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대체로 푸석한 빵 껍질같이 정서가 꽤나 삭막한 법인데 이만집은 제법 다혈질이랄까, 아직도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듯하다.**

이만집의 아버지는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남다른 결벽증으로 인해 어떤 부정 사건에 연루되어 혼자 죄를 덮어쓰고 공무원 직에서 파면당한 양반인 것 같다. **늘 피해 의식에 시달**리나 속마음은 멀쩡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만집의 맏형, 그 고서를 뒤적인다는 곰팡이 냄새 나는 인물과 동류항으로 보인다. 그들은 분명히 한 시대의, 또 한 사회 환경의 어정쩡한 부산물일 텐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서는 가해자인 '시대'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한 시대에 너무 밀착되었다가, 또는 그것과 꾸준히 호흡을 같이했다가 어느 날 배신을 당하면 그것과 매정하게 등을 지고도 이럭저럭 살아 내지기는 하는 모양이다. 그들은 애써 이 '시대'와 무관하다는 표정만 짓는다. 아무튼 무능하기 짝이 없으나 법 없이도 살 피해자들이고, 워낙 무기력하기 때문에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다. 어쩌면 **생래부터 착한 심성으로 고생을 낙 삼고 살 양반**으로 점지된 것 같다. 그러나 주위의 사회적 환경이, 곧 세파가 그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자격 상실자로 만들어

정답 및 해설 p.11

버렸다. 그렇긴 해도 그들이 속물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만날 수 있으며, 이런 답답한 위인들이야말로 사회를 사회답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길라잡이이다.

(중략)

큰형 집을 모두 함께 나오려 했을 때 셋째 형수라는 게 제 딴에는 애교를 부리며 한다는 소리가 또 내 부아를 긁어 놓았다. 선물까지 받아 우쭐대고도 싶어 공연히 점잖게 있는 사람의 심사를 건드려 양양이를 부리려는 속셈이었을 터이다.

"도련님은 언제 취직할 거예요? ㉣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아직 연애를 못 해 봐서 돈 벌기도 싫나 봐요, 그렇죠?"

나는 하는 수 없이 말 같잖은 말에 응했다.

"연애하고 취직하면 돈이 중한 줄 알게 될 거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 그런데 돌대가리인 제가 보기에는 돈이란 돈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그걸 쫓을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도무지 좋고 나쁜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공부나 슬슬 더해 볼까 어쩔까 싶어요."

알았다, 너희 내외나 **돈 많이 좋아**해서 호의호식하며, 너희들을 닮은 새대가리 후세나 잘 키우며 평생토록 짓까불어라.

내가 보기에는 이만집의 **셋째 형**처럼 영리한 형제가 집안에 하나쯤은 있어 가문을 덩실하게 살려 주면 좋겠는데 이 셋째 형이라는 위인은 처가 덕에 그리운 것이 없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야금야금 핥아 대는 이른바 출세 지향 주의자인 것 같다. 아무튼 흥미 있는 위인이고, 재미있는 세상살이인데 사람들마다의 사고를 획일화할 수 없듯이 사람들마다의 **재주와 처세술**도 이렇게 다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불공평이라는 이 세상만사의 영구불변하는 '형평의 질서'가 없으면 누가 고시에 합격하려고 엉덩이에 못이 앉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겠는가.

– 김원우, 「무기질 청년」 –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만집은 아버지의 학력이 아버지의 삶에 기여했다고 생각했다.
② 아버지는 이만집에게 경집이 형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③ 아버지는 부정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공무원 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④ 이만집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유능하다고 여겼다.
⑤ 이만집은 경집이 형의 차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갔다.

3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사람들의 속물적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② ㉡ : 인물의 무력한 삶의 태도를 비유한 표현이다.
③ ㉢ : 상대방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나타낸 표현이다.
④ ㉣ :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예상하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발화이다.
⑤ ㉤ : 상대방에 대한 냉소적 심리에서 비롯된 발화이다.

33. 윗글을 바탕으로 **비망록**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 간의 심화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② 특정 인물의 기록을 통해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게 하고 있다.
③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사건이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④ 동시적 사건들을 병치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파악하게 하고 있다.
⑤ 여러 감각을 사용한 배경 묘사를 통해 특정 인물에게 도래할 비극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무기질 청년」은 일종의 액자 소설로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가 번갈아 가며 서술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부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의 '나'가 제시한 이만집의 일기로, 외부 이야기는 주로 내부 이야기의 인물들과 사건에 대해 외부 이야기의 '나'가 제시한 소감과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중층 구조에서 서로 다른 ⓐ 내부 이야기의 '나'와 ⓑ 외부 이야기의 '나'는 유사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아울러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가 내부 이야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해석한 내용을 덧붙여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① ⓐ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측은하게 생각'한 것과 관련하여, ⓑ는 ⓐ에 대해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듯하다'고 판단하고 있군.
② ⓐ가 '셋째 형'을 '돈 많이 좋아'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는 '셋째 형'에 대해 그 자신의 '재주와 처세술'로 산다고 판단하고 있군.
③ ⓐ가 '아버지'를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인 사람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는 '아버지'에 대해 '해를 끼칠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군.
④ ⓐ가 자신의 일기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는 ⓐ에 대해 '늘 피해 의식에 시달'린다고 판단하고 있군.
⑤ ⓐ가 '아버지'를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용'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는 '아버지'에 대해 '생래부터 착한 심성으로 고생을 낙 삼고 살 양반'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1회

35. <보기>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활동]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자료]에 근거하여 탐구해 보자.

홅이[훌치]	홅어[훌터]	얹는[언는]
끓고[끌코]	끓는[끌른]	

[자료]

- ○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 비음화나 유음화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
- ○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구개음화되거나 뒤의 자음과 그다음 음절의 처음에 놓인 자음이 축약되면 일어나지 않음.
- ○ 자음군 단순화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뒤의 자음이 연음되면 일어나지 않음.

① '홅이[훌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와서 'ㅌ'이 'ㅊ'으로 교체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군.
② '홅어[훌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와서 'ㅌ'이 연음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군.
③ '얹는[언는]'은 'ㄵ' 중 뒤의 자음인 'ㅈ'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난 것이군.
④ '끓고[끌코]'는 'ㅎ'과 그다음 음절의 'ㄱ'이 축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군.
⑤ '끓는[끌른]'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남은 'ㄹ'로 인해 'ㄴ'이 'ㄹ'로 교체된 것이군.

36. <보기>를 모두 충족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인 용언이 포함될 것.
- ○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포함될 것.

① 화단도 아닌 곳에 진달래꽃이 피었다.
② 대학생이 된 누나가 주인공을 맡았다.
③ 학생이었던 삼촌은 마흔 살이 되었다.
④ 큰언니는 성숙했지만 성인이 아니었다.
⑤ 나무로 된 책상을 나는 그에게 주었다.

37.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단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준	분류
㉠	가변어, 불변어
㉡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자, 이제 아래 문장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음,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

학생 : [A]

선생님 : 네, 맞아요.

①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에 따라 분류하면 가변어 한 개, 불변어 네 개를 포함합니다.
② '나비 하나를'은 ㉡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두 개, 관계언 한 개를 포함합니다.
③ '음,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에 따라 분류하면 아홉 개의 품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④ '밝은'과 '잡았어'는 ㉡이나 ㉢ 중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류로 분류됩니다.
⑤ '그'와 '또'는 ㉡에 따라 분류하면 수식언이고, ㉢에 따라 분류하면 각각 관형사, 부사입니다.

[38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로 널리 쓰이는 것에 '-(으)ㅁ'이 있다. 접미사 '-(으)ㅁ'은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으며 '묶음, 기쁨'과 같은 단어를 만든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간에 '-(으)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으)ㅁ'이 비교적 널리 여러 어간에 결합할 수 있고 이것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의미가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령 '무덤'이 기원적으로 '묻-'에 '-엄'이 붙어서 된 것이기는 하지만 '-엄'은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므로 '무덤'에서 어간의 원형인 '묻-'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정답 및 해설 p.12~13

그런데 명사형 어미에도 '-(으)ㅁ'이 있어서, 현대 국어에서 '-(으)ㅁ'이 결합한 단어들 중에는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시원한 웃음을 크게 웃음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다.'에서 앞에 나오는 '웃음'은 관형어 '시원한'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므로 여기서 '-음'은 명사 파생 접미사이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웃음'은 명사절에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부사어 '크게'의 수식을 받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음'은 명사형 어미이다. '크게 웃음'을 '크게 웃었음'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미 '-(으)ㅁ'은 '-았/었-', '-겠-', '-(으)시-' 등 대부분의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 파생 명사와 ㉡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이 형태적으로 구별되었다. 예를 들어 '짜 그륨과[땅을 그림과]'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그륨'은 동사 '(그림을) 그리다'의 명사형인데, '그리다'의 파생 명사는 '그리-'에 '-ㅁ'이 붙어서 만들어진 '그림'이었다.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 '-(ᄋᆞ/으)ㅁ'과 명사형 어미 '-옴/움'이 형태상으로 구분되었다.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접미사 '-(ᄋᆞ)ㅁ'과 어미 '-옴'이, 음성 모음 뒤에서는 접미사 '-(으)ㅁ'과 어미 '-움'이 쓰였다. 그러다가 'ㆍ'가 소실되고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는 등 여러 변화를 입어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가 모두 '-(으)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8. 윗글을 통해 <보기>의 ㄱ~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나이도 어린 동생이 고난도의 춈을 잘 춤이 신기했다.
ㄴ. 차가운 주검을 보니 그제야 그의 죽음이 실감이 났다.
ㄷ. 나는 그를 조용히 도움으로써 지난날의 은혜에 보답했다.
ㄹ.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앒이 오히려 감상을 방해하기도 한다.
ㅁ. 그를 전적으로 믿음에도 결과를 직접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

① ㄱ에서 '고난도의'의 수식을 받는 '춤'은 명사이고, '잘'의 수식을 받는 '춤'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② ㄴ에서 '죽음'은 접미사 '-음'이 붙어서 된 말이므로 '주검'과는 달리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③ ㄷ에서 '도움'은 동사의 명사형으로, 명사절에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④ ㄹ에서 '앒'의 '-ㅁ'은 '알-'에 붙어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었다.
⑤ ㅁ에서 '믿음'의 '믿-'과 '-음' 사이에는 선어말 어미 '-었-'이 끼어들 수 있다.

39.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된 중세 국어 용언들의 ㉠과 ㉡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	㉡
① (물이) 얼다	어름	어룸
② (길을) 걷다	거름	거롬
③ (열매가) 열다	여룸	여름
④ (사람이) 살다	사롬	사룸
⑤ (다른 것으로) 골다	ᄀᆞ름	ᄀᆞ룸

[40 ~ 43] 다음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 오늘 방송할 내용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김 기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김 기자 :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을 수 없습니다. 생활 폐기물 중에서 일부를 소각하고 남은 재만 매립해야 합니다.

진행자 :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 여러 매립지의 포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행규칙은 그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김 기자 : 그렇습니다. 바뀐 시행규칙에 맞추어 원활한 소각 처리가 가능해진다면 매립지에 묻히는 생활 폐기물의 양을 지금의 20%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 감소하는 양이 크군요. 제가 볼 때는 매립지의 포화 시점을 늦추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소각 시설은 충분한 편인가요?

김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행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 지방 자치 단체에서 소각 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얼마 전, 소각 시설의 후보지로 선정된 △△ 지역 주민의 얘기를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주민 : 이렇게 갑자기 우리 지역이 소각 시설의 후보지로 선정되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김 기자 : 그리고 ⓐ 주민들이 "이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진행자 :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네요. 이번에는 박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가 있을까요?

박 기자 : 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죠.

진행자 :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곳은 공원이 아닌가요?

박 기자 : 네, 맞습니다. 지상은 이렇게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동영상을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공원의 지하에는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이 있습니다. 소각 시설의 지하화로 주민들이 우려했던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소각 시설의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진행자 : 그래도 제 생각에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과정을 거쳤나요?

박 기자 :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시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진행자 : 그래도 주민들에게는 소각 시설 설치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주민들이 소각할 때 생기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 걱정하지 않겠어요?

박 기자 : ○○시 소각 시설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생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기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시는 소각 시설과 관련한 앱을 만들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그 앱을 확인할 수 있나요?

박 기자 : 네, 화면 보시죠. 이렇게 ㉠ 앱 메인 화면에서는 여러 메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원하는 내용과 손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선 ㉡ 처리 공정을 누르면,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동영상이 나옵니다. ㉢ 대기 오염 농도를 누르면, 수시로 바뀌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소각 시설에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다면 ㉣ 시설 견학 신청을, 제안하려는 의견이 있다면 로그인을 한 후 ㉤ 의견 보내기를 누르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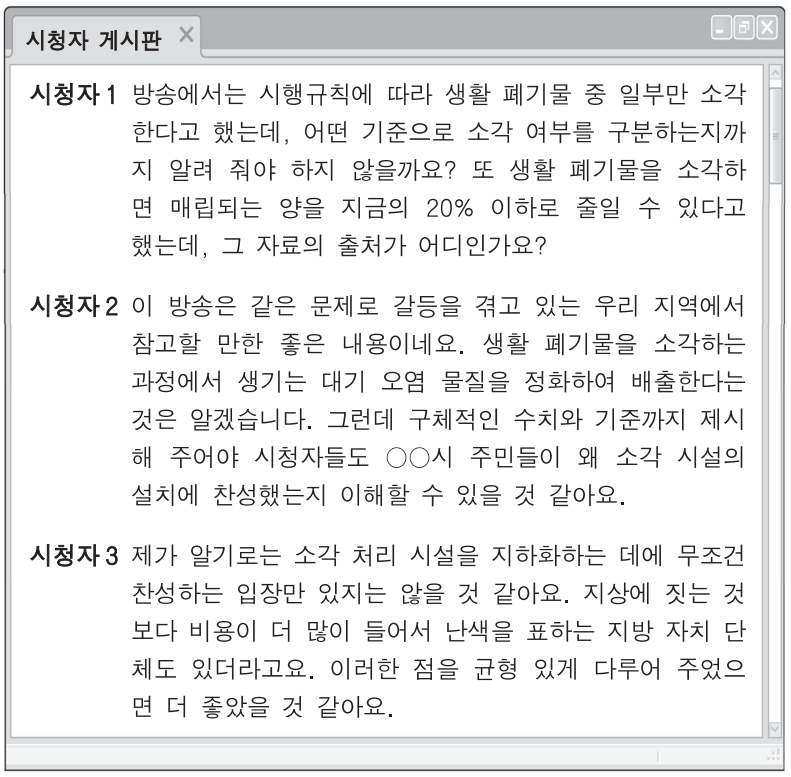
40. 위 프로그램을 시청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진행자는 김 기자가 언급한 정보를 자신이 과거에 보도한 내용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군.
② 김 기자는 인터뷰를 제시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전달하고 있군.
③ 박 기자는 동영상을 활용하여 언급된 문제 상황이 해결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군.
④ 진행자는 김 기자와 박 기자가 전달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군.
⑤ 진행자는 김 기자와 박 기자가 전달한 정보를 종합하여 해결 방안에 내재한 문제점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군.

41. 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할 때, ㉠ ~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에서 여러 메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는 생산자가 미리 정해 놓은 메뉴의 순서에 따라서만 정보 탐색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생활 폐기물의 처리 공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수시로 바뀌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변화하는 정보에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시설을 견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미리 등록된 정보를 수정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에서 소각 시설에 대한 의견 제안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다음은 위 프로그램이 보도된 이후의 시청자 게시판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시청자 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효과와 관련하여 방송에서 활용한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였다.
② 시청자 2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방송 내용의 유용성을 점검하였다.
③ 시청자 3은 소각 처리 시설의 지하화와 관련하여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점검하였다.
④ 시청자 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청자 2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배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가 충분한지 점검하였다.
⑤ 시청자 2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 과정과 관련하여, 시청자 3은 소각 처리 시설 지하화의 비용과 관련하여, 방송에서 활용한 정보가 사실인지 점검하였다.

43.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직접 인용은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지시 표현, 종결 표현 등에 변화가 일어난다. 가령 ⓐ를 간접 인용이 포함된 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주민들이 [A] 성토했습니다.

①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웠다고
② 저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웠다고
③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④ 그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웠다라고
⑤ 저 지역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정답 및 해설 p.14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44 ~ 45] (가)는 사진 동아리 학생들이 진행한 온라인 화상 회의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준영'이 만든 발표 자료의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수 : 드디어 다 모였네. 모일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니 참 편리하다.

가람 : 맞아. 그런데 현수는 카메라를 안 켰네? 대면 회의 대신에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니 모두 카메라를 켜고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수 : 앗, 그렇네. 지금 바로 카메라를 켤게.

준영 : 좋아. 내 목소리 잘 들려? (화면 속 학생들을 살피며) 다들 잘 들리는 것 같네. 오늘은 축제에서 사용할 동아리 활동 소개 자료에 대해 논의하자. 혹시 일정표 갖고 있니?

예나 : 내가 파일로 가지고 있어. 지금 바로 파일 전송할게.

파일 전송 : 동아리_활동_발표회_일정표.hwp(256 KB)

준영 : 고마워. 예나가 보낸 파일을 보니 발표 시간이 짧아서 올해 진행한 행사들만 슬라이드로 간단히 소개하면 될 것 같아.

예나 : 그럼 계절에 따라 진행한 행사 사진을 각 슬라이드에 넣으면 어때?

현수 : 좋은 생각인데, 나한테 봄에 '○○ 공원 사진 촬영'에서 찍은 동영상이 있어. 잠시 내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 줄게. (화면을 공유한다.) 이게 괜찮으면 슬라이드에 사진 대신 삽입하면 어떨까?

가람 : 오, 난 좋은데? 이걸 삽입하면 행사 모습을 사진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겠어. 여름 행사는 '사진 강연'이지?

현수 : 맞아. 아까 예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행사부터는 사진을 슬라이드에 넣어서 청중에게 보여 주면 될 것 같아.

가람 : 근데 그것만으로는 어떤 강연이었는지를 알 수 없잖아. 강연 일시와 장소뿐만 아니라 무슨 주제로 강연했는지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예나 : 좋아. 나도 동의해. 그럼 가을에 한 '옛날 사진관' 행사도 설명을 간단히 제시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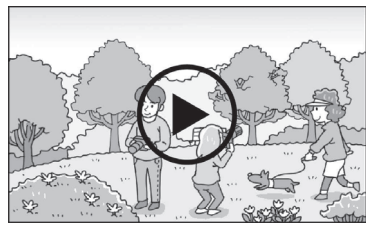
준영 : 근데 그 행사는 촬영한 사진들을 궁금해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동아리 블로그에 사진이 많이 있으니 블로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 코드도 삽입하면 어떨까?

예나 : 그게 좋겠다. 마지막 행사는 '장수 사진 봉사 활동'인데, 우리에게 의미 있는 행사였으니 슬라이드에 행사의 취지를 밝히고 행사에서 느낀 점을 간단히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가람 : 그렇게 하면 슬라이드에 담긴 설명이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 것 같아. 느낀 점은 발표자가 따로 언급만 하는 것으로 하자.

준영 : 그러자. 내가 초안을 만들 테니 나중에 함께 검토해 줘.

(나)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사진 동아리 △△의 봄  △△ 부원 모두가 함께한 **'○○ 공원 사진 촬영'**	**사진 동아리 △△의 여름** 김□□ 작가의 **'사진 강연'** · 강연 일시 : 20××.××.××. · 강연 장소 : 본교 소강당
슬라이드 3	**슬라이드 4**
사진 동아리 △△의 가을 복고를 주제로 많은 학생들을 촬영한 **'옛날 사진관'** ⇐ **사진 더 보기** (동아리 블로그로 이동)	**사진 동아리 △△의 겨울** **'장수 사진 봉사 활동'** 마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건강한 미소를 사진에 담아낸 재능 기부 활동

4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현수'는 대면 회의보다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는 장점을 들어 온라인 화상 회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가람'은 회의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회의의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③ '준영'은 화면을 살피며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음성이 잘 전달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④ '예나'는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⑤ '현수'는 자신의 화면을 공유하며 슬라이드에 동영상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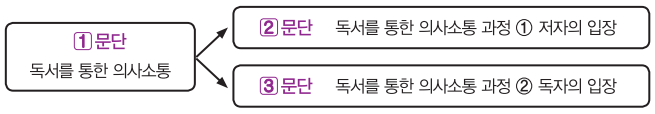
45. (가)를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공원 사진 촬영' 행사 모습을 청중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슬라이드 1'에 행사 사진을 추가한다.
② '사진 강연'의 내용을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슬라이드 2'에 강연 주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③ 진행한 행사를 청중에게 계절 순서에 맞게 제시하기 위해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3'에 제시된 행사를 맞바꾼다.
④ '옛날 사진관' 행사와 관련하여 청중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시하기 위해 '슬라이드 3'에 제시된 사진을 삭제한다.
⑤ '장수 사진 봉사 활동'이 동아리 부원들에게 주는 의미를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슬라이드 4'에 행사에서 느낀 점을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01~03 *독서를 통한 의사소통

■ 지문 내용과 구조



■ 주제: 독서를 통한 저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01 정답 ③ *내용 파악하기 [정답률 95%]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자와의 의사소통의 방식이 아닌 것은?

오답 정답 ?

③ 독자가 독서 목적에 따라 자신의 독서 계획을 점검하며 읽는 방식 *근거: ③문단
저자와의 의사소통과는 관계 없음.

3문단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저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독자가 독서 목적에 따라 자신의 독서 계획을 점검하며 읽는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 오답 ?

① 독자가 글의 주제를 찾으며 읽는 방식 *근거: ③문단 ❷문장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글의 주제를 파악함.

3문단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저자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 중 하나로 '독자는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며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저자와의 의사소통에 응한다.'라고 했다.

② 독자가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하며 읽는 방식 *근거: ③문단 ❸문장
저자가 전달한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함.

3문단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저자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독자는 '글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하기도' 한다고 했다.

④ 독자가 글을 읽으며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글을 찾아 읽는 방식
독서 활동의 확장

*근거: ③문단 ❻문장

3문단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저자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독자는 '독서를 하며 새로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글을 찾아 읽는 등 독서 활동을 확장하기도 한다.'라고 했다.

⑤ 독자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 방식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저자와 의사소통을 함.

*근거: ③문단 ❺문장

3문단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저자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독자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기도 한다.'라고 했다.

02 정답 ⑤ *반응, 비판, 평가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률 89%]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❶자산의 바다 안에는 ㉠ 어족이 매우 번성하여 이름을 아는 자가 드무니 ㉡ 사물에 정통한 자가 마땅히 살펴야 할 바이다.(독자들이 어족의 이름을 잘 모를 것이라고 예측함.) ❷나는 이에 널리 섬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계보를 만들 생각(저자의 생각)을 하였는데, 사람마다 각자 말이 달라 그대로 따를 수 없었다. …❸나는 마침내 그를 불러들여 머무르게 하면서 그와 함께 연구하고 차례를 매겨 책을 완성하고는 '자산어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 이외에도 바다의 날짐승과 해초류까지 언급하여 ㉣ 후대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로 삼았다.(책에서 다루는 내용) ❹다만 나는 고루하여 혹 이미 본초서에서 보았는데도 그 이름을 듣지 못하였거나, 혹 ㉤ 옛날에 이름이 없는데 고증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었다.(바다 안 어족의 이름을 고증할 수 없는 것이 많았음.) ❺그래서 단지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상스러워 읽을 수 없는 것은 그때마다 감히 이름을 새로 지었다.(바다 안 어족의 이름을 고증할 수 없어서 저자가 택한 방법 ①, 방법 ②)

– 정약전, 《자산어보》 서(序)

오답 정답 ?

⑤ ㉤에서는 저자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내용을 숨긴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근거: ②문단 ❺문장, 〈보기〉 ❹, ❺문장
어족의 이름을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하거나, 저자가 새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2문단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내용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한편 〈보기〉에서 정약전은 자산의 바다 안 어족에 대해 연구하여 책을 완성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다 안 어족 가운데에는 '옛날에 이름이 없는데 고증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었다(㉤). 그래서 단지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상스러워 읽을 수 없는 것은 그때마다 감히 이름을 새로 지었다.'라고 했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에서는 어족의 이름을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하거나 자신이 새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언급하고 있을 뿐, 저자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내용을 숨긴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오답 오답 ?

① ㉠에서는 저자가 독자의 사전 지식을 예측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독자가 어족의 이름을 잘 모를 것이라고 예측했음.

*근거: ②문단 ❷문장, 〈보기〉 ❶문장

2문단에서 '저자는 글을 작성하기 전에 독자의 사전 지식과 관심 등을 예측'한다고 했다. 〈보기〉에서 저자인 정약전은 '어족이 매우 번성하여 이름을 아는 자가 드무니 (㉠)'라면서 독자들이 자산의 바다 안에서 번성한 어족의 이름을 잘 모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② ㉡에서는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사물에 정통한 자가 마땅히 자산의 바다 안 어족을 살펴야 한다는 생각

*근거: ②문단 ❸문장, 〈보기〉 ❶문장

2문단에서 저자는 '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라고 했다. 〈보기〉에서 저자인 정약전은 자산의 바다 안 어족이 매우 번성했지만 이름을 아는 자가 드물다면서 '사물에 정통한 자가 마땅히 살펴야 할 바이다(㉡).'라고 했다. 이는 사물에 정통, 즉 자산의 바다 안 어족에 대해 잘 아는 자가 자산의 바다 안 어족을 살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③ ㉢에서는 저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자산어보에 바다의 날짐승과 해초류를 언급했다는 내용

*근거: ②문단 ❸문장, 〈보기〉 ❸문장

2문단에서 '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라고 했다. 〈보기〉에서 저자인 정약전은 자산의 바다 안 어족에 대해 연구하여 《자산어보》를 완성하면서 '이외에도 바다의 날짐승과 해초류까지 언급(㉢)'했다고 하였다. 이는 《자산어보》에서 독자들에게 바다의 날짐승과 해초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④ ㉣에서는 저자가 이 책의 내용이 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근거: ②문단 ❷문장, 〈보기〉 ❸문장
후대 사람들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

2문단에서 저자는 글을 작성하기 전에 '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글감으로 선정한다.'라고 했다. 〈보기〉에서 저자인 정약전은 자산의 바다 안 어족에 대해 연구하여 《자산어보》를 완성했다면서 이를 '후대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로 삼았다(㉣).'라고 했다. 이는 자신이 완성한 《자산어보》의 내용이 후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03 정답 ②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률 9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❶심리학자 바틀렛은 관심사가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디언 전설'을 읽게 한 후, 시차를 달리하여 여러 번 그 내용을 회상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실험 과정 ① 독자들에게 책을 읽게 함.) ❷실험 결과,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원문의 내용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후 서로 다르게 기억해 내는 특징을 보였다.(실험 과정 ② 독자들에게 책 내용을 회상하게 함. / 실험 결과)

오답 정답 ?

② 독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글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됨.

*근거: ③문단 ❼문장, 〈보기〉 ❷문장

3문단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독해 능력, 독서 태도 등에 따라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라고 했다. 한편 〈보기〉에서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원문의 내용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르게 이해한 후 서로 다르게 기억해 내는 특징을 보였다.'라고 했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보기〉의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인디언 전설'이라는 같은 글을 읽었는데도 원문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기억해 낸 이유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이 각각 다르며, 각기 다른 배경지식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이해하고 의미를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오답 오답 ?

① 독자의 독해 능력은 동일한 글을 반복하여 읽을수록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기〉의 학생들은 글을 반복하여 읽은 것이 아니라, 내용을 반복하여 회상함.

*근거: 〈보기〉 ❶문장

〈보기〉의 실험에서 학생들은 동일한 글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은 것이 아니라, 한 번 읽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하여 기억한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글을 반복하여 읽을수록 독자의 독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보기〉의 실험 결과와 관련이 없다.

③ 독자가 저자와 능동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글을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없음.

*근거: ③문단 ❼문장, 〈보기〉

3문단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독해 능력, 독서 태도 등에 따라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라고 했다.

〈보기〉에서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원문의 내용을 각자 다르게 기억해 낸 이유는 글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글의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가 저자와 능동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글을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보기〉의 실험 결과와 관련이 없다.

④ 독자마다 독서 태도가 다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습득하는 정보의 양은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근거: 〈보기〉 ❷문장
알 수 없음.

〈보기〉에서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원문의 내용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르게 이해한 후 서로 다르게 기억해 내는 특징을 보였다.'라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자들이 습득하는 정보의 양이 비슷해진다면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문의 내용을 서로 비슷하게 기억할 것이다.

〈보기〉의 실험에서 시간이 지나도 학생들이 기억하는 원문의 내용은 다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독자들이 습득하는 정보의 양이 비슷해진다는 것은 〈보기〉의 실험 결과와 관련이 없다.

⑤ 독자가 저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른 독자와 공유하기 때문이다. *근거: 〈보기〉 ❶문장
알 수 없음.

〈보기〉에 따르면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인디언 전설'을 읽은 후 그 내용을 각기 다른 시간에 여러 번 회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른 독자와 공유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독자가 저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른 독자와 공유했다는 것은 〈보기〉의 실험 결과와 관련이 없다.

오답?

① '가마괴'와 '백구'는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이다.
'가마괴', '백구'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갖고 바라보지 않음.

(가)에서 화자는 '가마괴'가 하얀 눈빛을 더럽힐까 걱정하고 있을 뿐 '가마괴'에게 경외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에서 '백구'는 화자에게 '인간 시비를 모르고 늙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을 뿐, 화자가 '백구'에게 경외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② '가마괴'와 '백구'는 모두 화자가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가마괴'와 '백구' 모두 화자가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음.

(가)에서 화자는 날아드는 '가마괴'가 눈빛을 더럽힐까 안타까워할 뿐, 가마괴를 계기로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지 않다. 또한 (나)에서 '백구'는 화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을 뿐, 화자가 백구를 계기로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마괴'는 화자가 위로하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에게 공감하는 대상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 / 당부의 말을 전하는 대상

(가)에서 화자는 '가마괴'가 눈빛을 더럽힐까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가마괴'를 위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에서 '백구'는 화자에게 공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⑤ '가마괴'는 화자가 속한 심미적 세계를 위협하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가 속한 탈속적 세계를 폄하하는 대상이다.
까마귀의 검은색은 하얀 눈빛 세상을 더럽힐 수 있음. / 세속의 세계를 폄하하고 있음.

(가)에서 화자는 '날아드는 더 가마괴 눈빛을 더러일샤'라며 날아드는 까마귀가 하얀 눈빛의 세상을 더럽힐까 걱정하고 있다. 즉 화자가 볼 때 '가마괴'는 아름다운 눈빛의 세상를 더럽힘으로써 화자가 속한 심미적 세계를 위협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에서 '백구들'은 화자에게 '인간 시비(是非)를 모르고 늙으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백구'가 시비로 가득한 속세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백구'는 화자가 속한 탈속적 세계가 아니라, 세속의 세계를 폄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26 다음을 참고하여 25번과 2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❶가사와 시조 작품에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❷(가)에서는 병중의 화자가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며 고통을 초극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❸한편 (나)에서는 사대부인 화자가 강호에서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❹이러한 화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 작품 속에 자연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가) (나) / 화자의 처지 / 설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병의 고통을 잊음. / 자연 속에서도 사대부로서 세상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함.

25 정답 ④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정답률 40%]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오답?

④ 학생 4: (가)의 '옥룡'을 떠올리며 '질병'을 잊은 것 같다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보고 아픔을 떨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고통을 잊는, (나)의 '율령천'에서 '세상의 번우한 벗'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도 세상을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번민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옥룡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소망을 가지며 질병의 고통을 잊고 있음. / 강호에서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냄. /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의 즐거움을 느낌.

(가)에서 화자는 '고목의 늙은 가지'를 '옥룡'에 비유하고 '네 등을 잠간 빌어' '벽공'에 오르고 싶다면서 '질병을 다 잊'었다고 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설경을 보면서 옥룡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소망을 가지며 질병의 고통을 잊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에서 자연은 화자가 질병의 고통을 잊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세상의 번우한 벗이 이 뜻 알까 하노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강호에서 누리는 여유로운 삶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것일 뿐, 강호에서 세상을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자의 번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① 학생 1: (가)의 '헌창'을 열고 '백두옹'이 된 '청산'의 변화를 인지하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감상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화자가 눈이 내려 하얗게 변해버린 풍경을 관찰하고 있음. /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그 변화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가)에서 화자는 '헌창을 널니 열고 병안을 높이 드니 / 만리 건곤의 무한한 청산이 / 엊그제 소년으로 백두옹이 되어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눈이 내려 하얗게 변해버린 풍경을 관찰하고 '소년'이 '백두옹'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즉 이때 자연은 화자가 감상하는 대상이다.

② 학생 2: (나)의 '율령천'에서 지내며 '아침밥'을 먹은 후 졸음이 나온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 시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화자가 강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 / 화자가 강호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잠.

(나)에서 화자는 '아침밥 좋이 먹고 긴 조오름 내었으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자신이 강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듯 화자가 강호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일상의 삶을 보내고 있으므로, 이때 자연은 화자에게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③ 학생 3: (가)의 '늙은 가지'에 쌓인 눈을 보고 '유흥이 깊어진다는 상황을 통해 설경에서 감흥을 느끼는, (나)의 '긴 감소'에 '낚대'를 들고 흩어 걷는 상황을 통해 강호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모두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화자가 늙은 가지마다 낱낱이 쌓이는 눈을 보며 그윽한 흥취를 느끼고 있음. / 화자가 율령천의 깊은 연못에서 낚시를 하며 강호를 즐기고 있음.

(가)에서 화자는 '고목의 늙은 가지 개개의 옥룡일새', '유흥이 전심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늙은 가지마다 낱낱이 쌓이는 눈을 보며 그윽한 흥취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듯 화자가 설경에서 감흥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때 자연은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율령천 긴 감소에 낚대 들고 흩걷다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율령천의 깊은 연못에서 낚시를 하며 강호를 즐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듯 화자가 강호에서 흥취를 즐기고 있으므로, 이때 자연은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학생 5: (가)의 '설리'에서 '신선'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눈을 보며 초월적 세계를 연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신선을 동경하는 이념이 드러나는, (나)의 '대산 상상봉'에서 '위군부애정'을 생각하는 상황을 통해 산봉우리에서 선비의 본분을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지닌 사대부로서의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눈을 보며 신선이 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음. / 산의 정상에 올라와서도 임금을 그리워함. / 임금에 대한 충(忠)

(가)에서 화자는 '바닥 없슨 신을 신고 설리의 배회하니 / 맹영이 잇도덜들 날도 아니 신선이라 할 거이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바닥 없는 신발을 신고 눈 속을 돌아다니는 신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듯 화자가 눈을 보며 '신선'이라는 초월적 세계를 연상하고 있으므로, 이때 자연은 화자에게 신선을 동경하는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대산 상상봉에 내 혼자 올라와서 ~ 평생에 위군부애정이야 일각인들 잊으리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산의 정상에 올라와서도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듯 화자가 강호의 산봉우리에서도 임금을 그리워하며 선비의 본분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때 자연은 화자가 지닌 사대부로서의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이다.

26 정답 ②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정답률 78%]

㉠을 고려하여 [A]에 대한 영상시를 제작할 때 학생들이 협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답?

② 눈이 온 거리에서 풍속에 따라 구슬을 줍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
[A]에서 구슬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 '경요(옥구슬)'는 '눈'을 빗대어 표현한 것임.

[A]에서 '만가 천항의 경요가 낭자하대'는 눈 내린 거리의 풍경이 마치 옥구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다고 비유한 것이다. 즉, [A]에서 '구슬'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① 눈으로 덮인 화자의 집이 영롱하게 빛나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다른 집이나 섬돌이 옥과 같은 것처럼 자신의 집도 찬란하여 좋음.

[A]에서 '집마다 경실이오 섬마다 옥계로새 / 내 집도 찬란하니'는 눈이 내려 다른 집이나 섬돌이 모두 옥과 같은 것처럼 자신의 집도 빛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마을의 집들과 거리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집마다 옥으로 만든 것처럼 눈이 쌓여 있고, 온 마을의 거리에도 옥구슬 같은 눈이 많이 쌓여 있음.

[A]에서 '집마다 경실이오', '만가 천항의 경요가 낭자하대'는 집마다 옥으로 만든 것처럼 눈이 쌓여 있고, 온 마을의 거리에도 옥구슬 같은 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눈이 쌓인 길 위로 말발굽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눈에 찍힌 말발굽이 마치 은잔처럼 낱낱이 뚜렷함.

[A]에서 '말발의 은잔은 개개히 두렷하니'는 눈에 찍힌 말발굽이 마치 은잔처럼 낱낱이 뚜렷하다는 뜻이다.

⑤ 눈이 내린 거리에 나란히 남겨진 수레바퀴 자국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
수레바퀴가 눈을 밟고 지나간 흰 자국이 나란히 남음.

[A]에서 '수레바퀴 흰 띠는 쌍을 비껴가고'는 수레바퀴가 눈을 밟고 지나간 자국이 쌍으로 나란히 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화자가 눈이 내린 거리에 남겨진 수레바퀴 자국을 관찰함으로써 알아낸 내용이다.

27~30

최인호, 〈견습 환자〉
- **주제**: 기계적 일상에 매몰된 현대인에 대한 연민
- **인물 관계도**

나	→ 연민 →	의사들, 간호원들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음. 입원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음.		'병원'이라는 공동체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감정을 제거한 채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음.

27 정답 ①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정답률 88%]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답?

① [A]는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부산스럽고 바쁜 간호원들과 의사들의 모습 병원의 분주한 분위기

[A]에는 '간호원들'이 '병실과 병실 사이를 부산스레 헤매고 있'고, '의사들'도 '기민한 동작으로 층계를 오르내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렇듯 부산스럽고 바쁜 간호원들과 의사들의 행동 묘사를 통해, 병원의 분주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②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인물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형 / 의사들을 웃기기 위해 노력한 자신의 모습

[B]에는 '애를 썼다', '기울이게 되었다'와 같은 과거형 진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인물의 시각이 아니라, 병원 의사들을 웃기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열의를 갖고 노력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③ [A]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B]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나' / '나'

[A]에는 서술자인 '나'가 의사들을 보며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와 같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A]는 이야기 외부가 아닌 내부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자신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B] 또한 서술자 '나'가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고, '웃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인'을 생각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B]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나'가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35 정답 ⑤ *한글 맞춤법 파악하기 [정답률 87%]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들어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덥고, 장마의 시작과 끝이 언제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드러] '덥-+-은' [여름] '덥-+-고' [장마] [끄치] '부리-+-ㄹ'

오답 정답 ?

⑤ '부릴'의 어간은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대표 형태로 선택해 표기한 것이군.
'부릴'의 대표 형태는 '부리-'로 실제 발음에 나타남.

'부릴'은 '부리-'라는 어간에 '-ㄹ'이라는 어미가 결합한 것이다. 이때 발음은 [부릴]로 대표 형태인 '부리-'가 발음에 그대로 나타난다.

36 정답 ② *음운 변동 파악하기 [정답률 83%]

㉮를 고려하여 〈보기〉의 ⓐ~ⓔ의 대표 형태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 다음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의 발음이다.

어간 \ 어미	-고	-아서	-지만	-는
ⓐ '깎-'	[깍꼬] 교체	[까까서] 연음	[깍찌만] 교체	[깡는] 교체
ⓑ '닳-'	[달코] 축약	[다라서] 탈락, 연음	[달치만] 축약	[달른] 탈락, 교체
ⓒ '쌓-'	[싸코] 축약	[싸아서] 탈락	[싸치만] 축약	[싼는] 교체
ⓓ '핥-'	[할꼬] 교체, 탈락	[할타서] 연음	[할찌만] 교체, 탈락	[할른] 탈락, 교체
ⓔ '갚-'	[갑꼬] 교체	[가파서] 연음	[갑찌만] 교체	[감는] 교체

오답 정답 ?

② ⓑ: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달코]와 [달치만]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닳-'이라면 둘 다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달-+-고'라면 'ㄱ'이 'ㅋ'이 되는 것을, '달-+-지만'이면 'ㅈ'이 'ㅊ'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음. 거센소리되기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달-+-고'가 [달코]로 발음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ㄹ'이 'ㄱ'을 만났을 때 'ㄱ'이 'ㅋ'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현상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달-+-지만'이 [달치만]으로 발음되는 것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대표 형태가 '닳-'이라면 '닳-+-고'가 [달코]로 발음되는 것과 '닳-+-지만'이 [달치만]으로 발음되는 것은 모두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 각각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이 되는 거센소리되기로 설명할 수 있다. 거센소리되기는 음운 변동 중 축약에 해당하므로 대표 형태가 '닳-'이라면 [달코]와 [달치만]은 둘 다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37 정답 ④ *연결 어미 파악하기 [정답률 92%]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연결 어미 '-고'의 쓰임은 다양하다. 먼저 ㉠ 앞 절과 뒤 절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경우가 있다. 또한 ㉡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나, ㉢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연결 어미 '-고'의 쓰임 ① / 연결 어미 '-고'의 쓰임 ② / 연결 어미 '-고'의 쓰임 ③

〈보기 2〉

○ 그들은 서로 손을 쥐고 팔씨름을 했다.
ⓐ - ㉢에 해당함.

○ 어머니는 나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 - ㉢에 해당함.

○ 나는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 ㉠에 해당함.

○ 눈 깜짝할 사이에 다리가 벌에 쏘이고 퉁퉁 부었다.
ⓓ - ㉡에 해당함.

○ 그 책은 내가 읽을 책이고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 - ㉠에 해당함.

오답 정답 ?

④ ㉢: ⓐ, ⓑ

ⓐ 그들은 서로 손을 쥐고 팔씨름을 했다.
앞 절의 동작이 지속되는 가운데 뒤 동작이 일어남.

'그들은 서로 손을 쥐었다'와 '그들은 팔씨름을 했다'가 연결 어미 '-고'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때 연결 어미 '-고(ⓐ)'는 '서로 손을 쥐'는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팔씨름을' 하는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므로 ㉢에 해당한다.

ⓑ 어머니는 나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앞 절의 동작이 지속되는 가운데 뒤 동작이 일어남.

'어머니는 나를 업었다'와 '어머니는 병원으로 달려갔다'가 연결 어미 '-고'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때 연결 어미 '-고(ⓑ)'는 어머니가 '나를 업'는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병원으로 달려'가는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므로 ㉢에 해당한다.

38 정답 ④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 파악하기 [정답률 67%]

〈보기〉의 ㄱ~ㄷ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ㄱ. 신중한 그는 고민을 가족들과 의논했다.
관형어(부속 성분) 주어(주성분) 목적어(주성분) 필수적 부사어(부속 성분) 서술어(주성분)

ㄴ. 너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좀 씻어!
주어(주성분) 관형어(부속 성분) 부사어(부속 성분) 목적어(주성분) 부사어(부속 성분) 서술어(주성분)

ㄷ. 네가 들은 소문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관형어(부속 성분) 주어(주성분) 부사어(부속 성분) 보어(주성분) 서술어(주성분)

오답 정답 ?

④ ㄴ의 '너는'은 안긴문장의 주어이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군.
'너는 밥 먹다.'의 주어 / '너는 손을 좀 씻어!'의 주어

ㄴ은 '밥 먹기'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이때 안은문장의 주어는 '너는'이고, 안긴문장인 '너는 밥 먹다.'의 주어도 '너는'이므로 안은문장에 안기면서 중복되는 주어가 생략된 것이다.

오답 오답 ?

① ㄱ의 '신중한'은 안은문장의 필수 성분이군.
부속 성분

ㄱ은 '신중한'이라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신중한'은 대명사 '그'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안은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라 부속 성분이다.

② ㄱ의 '가족들과'와 ㄷ의 '정말'은 생략이 가능한 성분이군.
생략이 불가능함.

ㄱ의 서술어 '의논했다'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 이다. 따라서 ㄱ의 '가족들과'는 필수적 부사어로 문장에서 생략이 불가능하다.

한편 ㄷ의 서술어 '아니다'는 주어,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ㄷ의 '정말'은 부사로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성분이다.

③ ㄴ의 '먹기'는 안긴문장의 부속 성분이군.
주성분

ㄴ은 '밥 먹기'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이때 '먹기'는 안긴문장인 '너는 밥 먹다.'의 서술어로, 안긴문장의 부속 성분이 아니라 주성분(필수 성분)이다.

⑤ ㄷ의 '네가'와 '사실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사실이'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임.

ㄷ은 '네가 들은'이라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이때 '네가'는 서술어 '들은'의 주어이다. 그러나 '사실이'는 서술어 '아니다' 앞에 쓰인 보어이다.

39 정답 ③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률 79%]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羅雲(나운)이 져머 노ᄅᆞᄉᆞᆯ 즐겨 法(법) 드로ᄆᆞᆯ 슬히 너겨 ᄒᆞ거든 부톄 ᄌᆞ로 니ᄅᆞ샤도 從(종)ᄒᆞᄉᆞᆸ디 아니ᄒᆞ더니 後(후)에 부톄 羅雲(나운)이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맛나미 어려ᄇᆞ며 法(법) 드로미 어려ᄇᆞ니 네 이제 사ᄅᆞᄆᆡ 모ᄆᆞᆯ 得(득)하고 부텨를 맛나 잇ᄂᆞ니 엇뎨 게을어 法(법)을 아니 듣ᄂᆞᆫ다

– 〈석보상절〉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 부텨 + ㅣ(주격 조사)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ᄉᆞᆸ-'이 사용됨. /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ᄫᅳ'이 나타남. / 사ᄅᆞᆷ + ㅣ(관형격 조사)

오답 정답 ?

③ '從(종)ᄒᆞᄉᆞᆸ디'를 통해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쓰이지 않음.

從(종)ᄒᆞᄉᆞᆸ디'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따르지'로 풀이된다. '從(종)ᄒᆞᄉᆞᆸ디'의 '-ᄉᆞᆸ-'은 객체인 '부텨'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현대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ᄉᆞᆸ-'은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므로 '從(종)ᄒᆞᄉᆞᆸ디'를 통해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 오답 ?

① '부톄'를 통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가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텨' / 'ㅣ'

'부톄'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부처가'로 풀이된다. 즉, 현대 국어에서 '부처'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것이 중세 국어에서는 '부톄'인 것이다. 이를 통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인 '부텨' 뒤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니ᄅᆞ샤도'를 통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니ᄅᆞ샤도'의 'ㄴ'이 그대로 살아 있음.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소리에 올 수 없는 자음에 대한 법칙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존재하여 첫소리의 모음이 'ㅣ'를 가질 때 'ㄴ'이 발음되지 못한다.

'니ᄅᆞ샤도'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이르셔도'로 풀이된다. 현대 국어의 '이르셔도'와 중세 국어의 '니ᄅᆞ샤도'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와 달리 모음 'ㅣ' 앞에서 'ㄴ'이 나타나 있으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5회

④ '어려ᄇᆞ며'를 통해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음운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ㅸ'

'어렵다'는 중세 국어 시기에 '-으며'와 같은 어미가 결합할 때 'ㅂ' 불규칙 활용이 일어났다. 이때 'ㅂ'이 'ㅸ'(순경음 'ㅂ')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ㅸ'은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⑤ '사ᄅᆞ미'를 통해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의'와 달리 '이'의 형태가 사용됨.

'사ᄅᆞ미'의 현대어 풀이는 '사람의'이다. '사람의'는 '사람'이라는 명사와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ᄅᆞ미'는 '사롬'이라는 명사와 '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0 정답 ④ *매체 자료의 내용 파악하기 [정답률 84%]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왜 정답?

④ '#2'에서 전문가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진행자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고 있군.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지 않음.

(가)의 '#2'와 관련하여 (나)에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에 활용할 데이터를 많이 확보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왜 오답?

① '#1'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요약하며 확인하고 있군.
'우리 지역에 기반 시설이 잘 ~ 말씀이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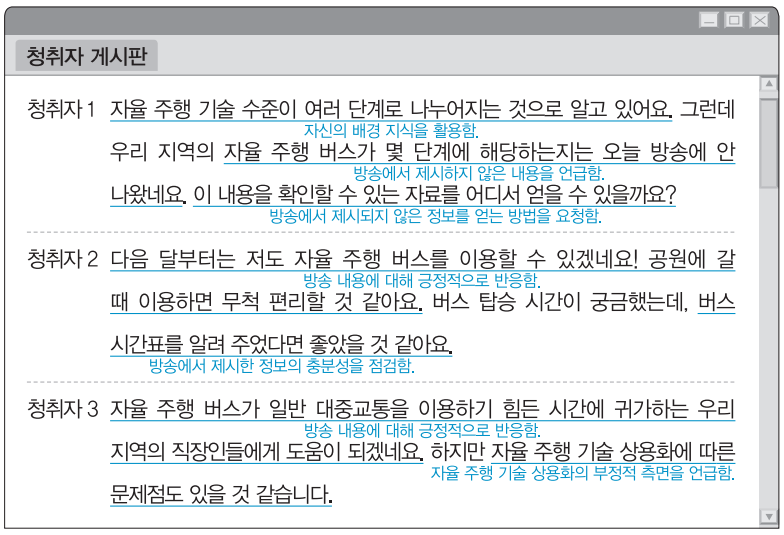
② '#1'에서 전문가는 방송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두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군.
연구자의 입장과 시의 입장을 고려함.

③ '#2'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사전 체험단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시함.

⑤ '#3'에서 진행자는 청취자들의 예상 반응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군.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다들 반가워하실 거예요.'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시범 사업의 운영 방안을 소개해 주세요.'

41 정답 ⑤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률 78%]

다음은 ⓐ의 일부이다. 청취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왜 정답?

⑤ 청취자 2와 3은 방송에서 제시한 내용이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공원에 갈 때 이용하면 무척 편리할 것 같아요.', '자율 주행 버스가 ~ 도움이 되겠네요.'

청취자 2는 '공원에 갈 때 이용하면 무척 편리할 것 같아요.'라고 하며 방송에서 제시한 자율 주행 버스에 관한 내용이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하였고, 청취자 3은 '자율 주행 버스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시간에 귀가하는 우리 지역의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라고 하며 방송에서 제시한 자율 주행 버스에 관한 내용이 우리 지역의 직장인들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왜 오답?

① 청취자 1은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 하였다.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지 않음.

청취자 1은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제시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러나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근거가 적절한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② 청취자 2는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하였다.
정보가 믿을만한지를 점검하지 않음.

청취자 2는 방송에서 제시한 내용이 자신에게 유용한지 점검하고 방송에서 제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가 믿을만한지, 출처가 명확한지를 점검하며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③ 청취자 3은 방송에서 특정 내용이 강조된 의도를 추론하였다.
특정 내용이 강조된 의도를 추론하지 않음.

청취자 3은 자율 주행 버스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시간에 귀가하는 우리 지역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며 방송에서 제시한 내용의 유용성을 점검하였고, 자율 주행 기술 상용화의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방송에서 특정 내용이 강조된 의도를 추론하지는 않았다.

④ 청취자 1과 3은 방송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요청하였다.
청취자 3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요청하지 않음.

청취자 1은 우리 지역의 자율 주행 버스가 자율 주행 기술 수준의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방송에 제시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해당 정보를 얻는 방법을 요청하였다. 반면 청취자 3은 자율 주행 버스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우려를 드러낼 뿐 방송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42 정답 ② *문법 표현 파악하기 [정답률 9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왜 정답?

② ㉡: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시범 사업을 운영한 주체를 드러내고 있다.
드러내지 않음.

㉡에서 '운영된'의 피동 접사 '-되다'는 시범 사업의 대상이 '사전 체험단'임을 드러내고 있을 뿐 시범 사업을 운영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왜 오답?

④ ㉣: 의존 명사 '만큼'을 사용하여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의 근거를 드러내고 있다.
시범 사업이 시민의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는 점

㉣에서는 의존 명사 '만큼'을 사용하여 '시범 사업이 시민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43 정답 ① *매체의 소통 방식 파악하기 [정답률 83%]

〈보기〉는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방송사 홈페이지 화면의 일부이다. (나)와 〈보기〉의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왜 정답?

① (나)에서 언급된 시범 사업 성과가 〈보기〉에서는 자막으로 요약되어 있다.
자막으로 요약되어 있지 않음.

(나)에서 전문가는 시범 사업의 성과로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에 활용할 데이터를 많이 확보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기〉에 자막으로 요약되어 있지는 않다. 〈보기〉에 제시된 자막은 노선 연장과 관련된 것이다.

왜 오답?

② (나)에서 언급된 노선 정보가 〈보기〉에서는 시각 기호가 표시된 지도로 보충되고 있다.
'노선도'

(나)에서 전문가는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원까지의 기존 노선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청 정류장 등을 추가하여 노선을 연장할 예정입니다.'라며 노선 정보를 언급하였다. 〈보기〉에서는 (나)에서 언급된 노선 정보가 '노선도'라는 시각 기호가 표시된 지도를 통해 보충되고 있다.

③ (나)에서 언급된 정류장 추가에 대한 정보가 〈보기〉에서는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추가되는 시청 정류장을 손으로 가리킴.

(나)에서 전문가는 '시청 정류장 등을 추가하여'라며 정류장이 추가된다는 정보를 언급하였다. 〈보기〉에서는 (나)에서 언급된 정류장 추가에 대한 정보가 전문가가 손으로 추가되는 시청 정류장을 가리키는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④ (나)에서 언급된 사전 체험단 경험에 대한 반응이 〈보기〉에서는 실시간 채팅창에 제시되어 있다.
'저도 사전 체험단이에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하고 싶어요.'

(나)에서 전문가는 '사전 체험단에 참여하신 분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반응을 직접 남겨 주셨네요.'라며 사전 체험단 경험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 채팅창에서 확인하여 언급하였다. 〈보기〉에서는 (나)에서 언급된 사전 체험단 경험에 대한 반응이 실시간 채팅창에 '구름이'가 남긴 메시지로 제시되어 있다.

⑤ (나)에서 언급된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지난 방송 내용이 〈보기〉에서는 다시 보기 하이퍼링크로 제공되고 있다.
'[지난 방송 다시 보기] 491화 자율 주행 기술의 원리'

(나)에서 진행자는 '지난 방송에서는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라며 지난 방송에서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해 다루었음을 밝혔다. 〈보기〉에서는 (나)에서 언급된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지난 방송 내용이 '[지난 방송 다시 보기]' 메뉴의 '491화 자율 주행 기술의 원리'라는 제목을 클릭하면 지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로 제공되고 있다.

44 정답 ④ *매체 언어의 표현 파악하기 [정답률 90%]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왜 정답?

④ 지구의 온도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건수의 양적 변화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지구 표면 온도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건수 증가 추이'

(가)에 시각 자료로 제시된 '지구 표면 온도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건수 증가 추이'를 보면 1950년에는 30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지만 이후 지구의 표면 온도가 1℃ 상승한 2010년에는 520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구의 온도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건수의 양적 변화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45 정답 ④ *정보 구성 방식 파악하기 [정답률 86%]

(가)를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제작자가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왜 정답?

④ (가)에 제시된 동아리의 정책 제안 활동을 참고하여, 청소년이 관련 기관에 제안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기후 행동에 참여하도록 해야겠어.
평가를 확인하는 기능은 (나)에 계획되지 않음.

(가)에서는 옷에도 환경 인증 등급을 적용해 달라는 정책을 제안한 인근 학교 동아리의 사례를 통해 동아리의 정책 제안 활동을 제시하였다.

(나)-4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관련 기관에 제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관련 기관에 제안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